

스페인어 중성어가 요구하는 인지 상태에 대한 위계구조: esto, eso, aquello, lo, ello

양 성 혜
고려대학교

양성혜(2020), 「스페인어 중성어가 요구하는 인지 상태에 대한 위계구조: esto, eso, aquello, lo, ello」,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1), 53-88.

초 록 스페인어에 중성명사는 없지만 esto, eso, aquello, lo, ello와 같은 5개의 중성어가 있다. 본고에서는 스페인어의 이들 중성어가 [-discreto]를 기본 의미자질로 공유한다고 보고, 각각의 형태가 어떤 변별적인 의미 자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양적인 접근 방법으로 CREA (Corpus de Referencia del Español Actual)에서 현대스페인어 구어 코퍼스 중 스페인의 라디오 /TV 프로그램에서 녹음된 1996년 3건의 인터뷰 내용에 한정하여 중성어들의 사용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질적 분석 접근법으로 Traugott(2003)의 '주관성 이론'(Theory of Subjectification)과 Gundel, Hedberg and Zacharski(1993)의 지시표현의 '주어진 인지적 상태의 위계모형'(The Givenness Hierarchy)을 바탕으로 스페인어의 esto, eso, aquello, lo, ello를 쓴 지시표현이 요구하는 인지 상태를 4단계로 위계화했다. 즉 초점(en foco) > 직시(deíctico) > 대용(anafórico) > 한정(definido) 순이며, 상위의 인지 단계는 하위의 모든 인지 단계를 포괄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중성관사로 쓰인 lo는 명사구 자체로만 청자가 지시체를 확인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인지 단계인 '한정'을 요구한다. Ello와 대명사로 사용된 lo는 '대용'의 인지 단계를 요구하는데 이 단계에서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지시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미 관련된 표현이 앞 문장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Esto, eso, aquello는 상황적 문맥에서 지시체에 접근이 가능함을 암시하기 때문에 '직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관성이 있는 재형상화 표시자로 사용된 esto와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간주관성을 가진 반응의 표시자로 사용된 eso는 '초점'이라는 가장 강력한 인지 상태를 활성화해야 한다.

핵심어 스페인어 중성어, esto, eso, aquello, lo, ello, 주관성 vs. 간주관성, 인지적 상태의 위계 구조

I. 연구동기 및 주제

스페인어에서 명사는 중성이 없지만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 외에 중성관사 또는 중성대명사로 불리는 *lo*, 중성대명사 *ello*로 모두 다섯 가지 형태의 중성어가 있다. 라틴어에서는 남성, 여성, 중성으로 명사의 성체계가 삼분되었고, 명사의 성수에 따라 지시사가 사용되었지만, 로망스어를 거쳐 스페인어로 발전되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된 명사 체계가 확립되었고 위 5가지 형태의 중성어들이 남게 되었다. 이 중성어들은 라틴어의 지시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중성명사가 사라진 스페인어에서는 그 쓰임 역시 재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정관사로 쓰일 수 있는 *lo*는 라틴어에서 없던 관사 범주를 형성하게 되었고 중성관사 또는 중성대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 중성 지시사 *esto*, *eso*, *aquello*는 더 이상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사 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대명사 형태로만 사용된다. *Ello*는 중성 주격대명사로 역시 대명사로만 사용된다.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함께 쓰이는 형용사와 같은 수식어들은 남성단수 형태인데, 스페인어에서는 남성형이 무표적인 형태(*forma no marcada*)이기 때문이다.

중성어 연구는 중성지시사, 중성관사 *lo*, 중성주격대명사 *ello* 연구로 삼분되어 각각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다.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은 남성 여성 지시형용사와 어떻게 그 쓰임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Eguren 1999, Satorre Grau 2002, Pomino and Stark 2006, De Cock 2013, etc.). 중성어 *lo*는 주로 중성 정관사로서 *el/la*와 함께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중성대명사로 사용된 *lo*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Leonetti 1990, 1999, Laca 1993, Stark and Pomino 2010, etc.). 주격 혹은 전치격으로 사용되는 중성어 *ello*는 주로 중미지역에서 허사 주어로 쓰이는 쓰임을 연구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Henríquez 1939, Fernández Soriano 1999, Hinzelin and Kaiser 2007, etc). 따라서 중성어 다섯가지 형태, *esto*, *eso*, *aquello*, *lo*, *ello*를 모두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상보적인 관계성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스페인어 중성어 다섯 가지 형태의 쓰임을 비교 분석하되 화자가 중성어들을 이용해 지시표현을 할 때 상정하는 청자의 지시체에 대한 인지적 상태를 등급화 함으로써 변별적 차이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지시사 *esto, eso, aquello*는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상황 맥락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시체가 원근거리에 있는가에 따른 직시적 용법(*uso deíctico*)과, 이미 언급된 내용을 지시하는 대용적 용법(*uso anafórico*)이다. 특히, 대용 용법은 나머지 중성어 *lo*와 *ello*가 공유하는 용법이다. 즉, 다섯 개의 스페인어 중성어들은 모두 성을 정할 수 없는 문법적 단위 즉 [-humano(인간의)] 속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명사, 보어, 동사, 문장 전체 등의 개념을 가리키는 대용적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humano] 혹은 [-animado(유생성)]의 자질이 스페인어 중성어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무생성의 사물들도 스페인어 명사체계 안에서는 남성(cf. *el libro*) 혹은 여성(cf. *la casa*)으로 문법적 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은 중성어들이 공유하는 자질로 [-humano]에 덧붙여 [-contable(가산성)], [-abstracto(추상성)], [+proposicional(명제)] 등으로 설명하곤 했다(Ojeda 1984, 1992, Penny 1991, Hare 1994, etc.).

그러나 Pomino & Stark(2006)는 중성어의 자질이라고 보았던 [-humano], [-contable], [-abstracto], [+proposicional] 등이 본질적인 의미자질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반면 Otheguy(1978)의 *el/la*와 대별되는 *lo*의 의미를 “well-delineated boundaries”(경계가 명확한) 대 “not well-delineated boundaries”(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로 보는 구분¹⁾을 받아들여 라틴어와 스페인어 중성어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discreto]로 보고 있다. 즉 남성, 여성으로 분리되어 사용된 경우는 [+discreto]의 의미자질이 있는 반면, 중성인 경우 [-discreto]의 변

1) “*el/la* convey the meaning of clear, well-delineated boundaries; *lo* conveys the meaning of unclear, diffuse, and not well-delineated boundaries. [...] I propose, then, that the forms *el* and *la* mean ‘Discrete’, and the form *lo* ‘Nondiscrete’”(Otheguy 1978, 243, Pomino and Stark, 2006, 951에서 재인용).

별적 의미자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구분은 지시사 뿐만 아니라 정관사에서도 중성과 나머지 남성/여성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페인어 한정사 및 대명사는 모두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능한 한정된 지시체를 확인(*la identificación de un referente delimitado posible*)하게 하는 즉 개별화(*individualización*)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때, 중성어는 지시체가 덜 완벽하게 한정된 혹은 경계 혹은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반면 (*el referente es algo mal delimitado o perfilado, algo [no discreto]*) 나머지 형태의 지시사들은 경계 또는 윤곽이 명확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중성어의 기본 자질을 [-discreto]로 볼 때 중성어가 스페인어에서 복수형이 없는 이유도 명확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로 복수의 개념은 이미 개별화된 개체 즉 [+discreto 경계가 명확한] 자질을 지닌 개체를 전제할 때 둘 이상이 모인 경우 복수가 되기 때문에 [-discreto]인 중성어의 경우는 복수화가 불가능한 것이다(Ojeda, 1984, 172, Leonetti, 1999).

본고에서는 스페인어의 다섯가지 중성어가 [-discreto]를 기본 의미자질로 공유한다고 보는 위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되,²⁾ 각각의 형태가 어떤 변별적 특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접근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은 Traugott(2003)의 ‘주관성 이론’(Theory of Subjectification)과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의 ‘주어진 인지적 상태의 위계모형’(The Givenness Hierarchy)이다. 즉 ‘주관화’의 정도와 화자가 청자가 지시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청자의 지식 및 상태를 파악한 후 사용하게 되는 지시표현이 요구하는 인지 상태의 위계적 척도에 따라 다섯 가지 중성어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2) De Cock(2013, 10)는 중성지시사의 경우 “지시체의 추상적이나 모호함이 어느 정도 있는 것”(cierto grado de abstracción o vaguedad del referente)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데, Pomino and Stark(2006)의 [-discreto]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II. 중성 지시사 *esto, eso, aquello*의 변별적 의미 자질

1.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의 사용 빈도 비교

많은 학자들이 지시표현(*expresión referencial*)을 담화에 의존하는 화용적인 직시용법과 담화에서 독립적인 대용용법으로 분리해서 설명한다(Harley and Ritter 1999, 2002, Eguren 1999, Satorre Grau 2002, Pomino and Stark 2006, De Cock 2013, etc). 직시용법에서는 담화가 대화에 참여한 화자(1인칭)와 청자(2인칭) 사이에 설정되고, 1인칭과 2인칭이 아닌 것은 모두 3인칭으로 지시체가 담화 밖에 있음을 표현한다. 대용용법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의 담화 설정이 배제되었지만 지시체는 당연히 3인칭이 되며 [+individualización] 개체화하는 것이 주된 의미적 속성이라고 본다. 스페인어 중성어의 경우 지시사인 *esto, eso, aquello*의 경우는 직시용법과 대용용법으로 모두 사용되지만, *lo*와 *ello*의 경우는 대용용법으로만 사용된다. 이들 다섯 가지 형태가 공유하는 의미 속성은 지시체가 [-discreto] 즉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질’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를 비교해보자.

Ponimo and Stark(2006)이 제시한 *Corpus del Español*(2000)에서 제공하는 20세기 현대 스페인어 코퍼스를 살펴보면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중성지시사는 *eso*로 33,019건으로 67.26%를 차지한다. De Cock(2013)은 *Corpus del Español centro-peninsular*(CORLEC, 1990-1993)에서 제공하는 비격식대화문과 TV토론, 의회 토론의 3가지 코퍼스에서 이 3가지 중성지시사의 사용 빈도를 비교했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 가장 많이 쓰인 형태는 역시 *eso*로 62.6~72.6%였으며, *esto*는 25.2~34.9%, *aquello*는 2.2~5.1%로 나타났다. 자세한 수치는 <표 1>과 같다.³⁾

3) De Cock(2013, 16)는 전체 어절에서 스페인어 중성지시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로 나타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 3개 형태가 쓰인 용례를 100%로 보았을 때 각각의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표 안의 %를 수정하여 제시했다.

〈표 1〉 스페인어 중성어가 차지하는 *Corpus del Español*(2000)에서의 빈도(De Cock, 2013, 16)

	Esto	Eso	Aquello
Conversación informal	337 (25.2%)	972 (72.6%)	29 (2.2%)
Debate televisivo	112 (34.9%)	201 (62.6%)	8 (2.5%)
Debate parlamentario	20 (25.3%)	55 (69.6%)	4 (5.1%)

이유는 왜일까? 다음 절에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스페인어 지시사의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답을 구해보고, 그 다음 절에서는 화용적 관점에서 주관성/간주관성 이론에 근거하여 사용빈도에 대한 해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2. Esto, eso, aquello의 역사적 기원에 근거한 사용 빈도 해석

역사적 관점에서 라틴어의 지시사는 HIC, ISTE, ILLE로 삼분되었는데, HIC는 화자에게 가까운 지시체(*cerca del hablante*)를 ISTE는 청자에게 가까운 지시체(*cerca del oyente*)를 ILLE는 화자와 청자에게서 먼 지시체(*lejos del hablante y del oyente*)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스페인어 지시사 *esto*, *eso*, *aquello*은 HIC, ISTE, ILLE의 중성형태를 그대로 승계하며 나온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자질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고전라틴어의 HIC는 통속라틴어에서 사멸하고 ISTE-ILLE 이분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화자에게 가까운 지시체를 가리킬 때는 ISTE를 사용하고 화자에서 먼 지시체는 ILLE를 사용하다가 다시 화자와 청자를 고려한 삼분 지시사 체계를 재정립하게 되면서 IPSE를 중간거리 혹은 청자의 근거리 지시체를 가리키기 위해 다시 영입하게 되는데, IPSE는 Alvar y Pottier(1983, 104)에 의하면 ‘대용이나 한정 지시사’(demostrativo anafórico o determinativo)로 사용되던 지시사였고, Pomino and Stark(2006, 957)에 의하면 IPSE는 ‘초점화하는 요소’(elemento focalizador)였고 주로 명사를 초점화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현대 스페인어 중성지시사 *esto*는 ISTE의 중성형태인 ISTUD에서 나왔고, *eso*는 새롭게 영입된 초점화의 역할을 했던 지시사 IPSE의 중성형태인 IPSUM에서 나왔다.

한편, 원거리 지시사였던 ILLUD는 주격으로 쓰인 경우 스페인어에서 강세 대명사인 ello로 변화되었고, 대격으로 사용된 경우는 ILLU(D)에서 비강세 대명사 lo로 변화하여 형태를 잡게 되면서 직시적 의미가 약화되고 대용의미만 남게 되었으며, 따라서 원거리 지시체를 나타내는 직시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ILLE의 중성형태 ILLUD 앞에 'he aquí'(내가 여기 있다)는 의미를 가진 ECCU를 앞에 합쳐 ECCU+ILLUD를 쓰게 되었고, 결국 스페인어에서 aquello로 형태가 축약되어 나타난 것이다(Resnick 1981, 88-89).⁴⁾

이와 같이 라틴어에서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스페인어 지시사 형태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정리해보면 <표 2>의 도식과 같다.

<표 2> 라틴어에서 스페인어까지 중성지시사의 변천 과정

남성단수 지시사	고전라틴어		→	현대 스페인어	
화자-근거리	HIC	ISTE	ISTE	ISTE	este
청자-근거리	ISTE		IPSE	IPSE	ese
화청자-원거리	ILLE	ILLE	ILLE	ECCU+ILLE	aquel
	중성지시사		고전라틴어 → 현대 스페인어		
	화자-근거리		ISTUD	ISTUD	esto
	청자-근거리		IPSUM	IPSUM	eso
	화청자-원거리		ILLD	ECCU+ILLUD	aquello

즉, 남성, 여성, 중성으로 삼분 명사체계를 가졌던 라틴어에서 스페인어는

4) ILLE의 남성단수대격형인 ILLUM서 직접목적격 대명사 lo가 나오고, 여성단수대격형인 ILLAM서 직접목적격대명사 la가 나오고 각각의 복수대격형인 ILLOS, ILLAS에서 los, las가 나오게 되었으므로 스페인어 직접목적격대명사의 기원도 역시 라틴어의 원거리 지시사인 ILLE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간접목적격대명사의 경우는 ILLE의 여격단수형태가 남성 여성 동형인 ILLI, 남녀 동형 여격복수형인 ILLIS에서 le, les가 유래하였으므로 역시 그 기원은 라틴어 원거리 지시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페인어 정관사 역시 라틴어 원거리 지시사에서 나왔는데, 남성단수주격형태인 ILLE가 el로 여성단수주격형태인 ILLA가 la로, 중성단수주격형인 ILLU(D)에서 lo가 나오게 되었으며 복수형인 남성복수대격형인 ILLOS에서 los가 여성복수대격형인 ILLAS에서 las가 나오게 되었으므로 직접목적격대명사 남성/여성 복수형과 정관사 남성/여성 복수형은 기원이 같다(Resnick 1981, 87-89).

남성, 여성의 이분 명사체계로 재편되면서 중성지시사의 경우 13세기부터 사용되었다고 보는데, 라틴어의 청자의 근거리를 나타냈던 중성지시사 ISTUD가 화자의 근거리 지시체를 나타내는 esto로 귀결되었고, 한동안 비어있던 청자에서 근거리를 나타내는 지시사로 ‘대용, 한정’의 중성지시사⁵⁾이자 ‘초점화 요소’였던 IPSUM이 직시 의미를 획득하면서 eso가 되었으며, 중성정관사로 변화한 ILLUD가 직시적 의미를 잃고 대용적 의미로 약화되자, 원거리의 직시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는 의미를 지닌 ECCU를 ILLUD와 함께 씌으로써 aquello<ECCU+ILLUD가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 스페인어 코퍼스를 살펴보았을 때, 중성지시사 중 eso가 압도적인 빈도를 차지하는 이유는 역사적 기원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esto는 원래 근거리 직시성이 있었던 라틴어 ISTUD에서 나왔기에 직시성이 주된 용법이고 aquello의 경우는 대용용법으로 의미가 약화된 ILLUD에 다시 원거리 직시성을 주기 위해 ECCU를 함께 쓴 형태에서 기원했으므로 역시 직시성이 주된 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코퍼스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킬 경우 당연히 직시성이 강한 esto와 aquello가 주로 사용되었고 eso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De Cock(2013, 10-11)은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는 실물 맥락에 존재하는 사물들(objetos presentes en el contexto físico)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체들(entidades abstractas), 앞 문장 전체(oraciones enteras), 생각들(ideas)을 지시하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남성/여성 지시사와 비교하여 직시성 용법에 어울리지 않아 사용 빈도가 낮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중성지시사 중에서도 추상적인 무생의 개체 혹은 명제를 가리키는 경우 eso의 사용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는 IPSUM이 직시용법보다는 대용 또는 한정 용법으로 쓰이던 지시사였으므로 사실 현대스페인어에서도 그 쓰임은 담화상황이 설정된 직시용법보다 담화 상황 설정이 필요 없는 더 광범위한 대용용법으로 쓰이면서 사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

5) 중성지시사 eso의 경우 (예a)와 같이 여러 개의 나열된 명사구를 가리킬 때, 혹은 앞 문장에서 제시된 문장 혹은 명제들을 가리킬 때 (예b)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Pomino and Stark(2006, 958)은 중성어가 [-discreto]의 자질이 있으므로, 구체성이 결여된 앞서 언급된 내용이 뜻하는 명제나 사건을 가리키는 대용 용법에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aquello*의 경우는 14세기 이후 사용 빈도가 줄었고, *esto* 역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용용법에서 빈도가 점차로 줄어가고 있지만 반면 *eso*의 명제를 지시하는 대용용법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discreto]인 중성지시사는 두 명제나 두 사건 사이의 거리 또는 화자와 청자의 기준에서 원근을 정확히 상정하며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eso*보다는 비교적 원근감이 명확한 *esto*와 *aquello*를 원근의 거리를 나타내는 직시용법에 주로 쓰게 되었지만 그 빈도가 매우 낮고, 오히려 담화 상황에서 독립적인 대용용법으로 사용된 *eso*가 넓은 사용역을 확보하면서 빈도가 올라갔다고 본다.

3. 주관성/간주관성 입장에서 본 *esto*, *eso*, *aquello*의 변별적 의미 분석

역사적 기원에 기초한 설명이 아니라 인지적 견지에서 화용적 측면의 설명으로 *eso*의 높은 빈도를 설명한 선행연구가 있다. 앞서 언급한 De Cock(2013)인데, 중성지시사의 대용용법에 초점을 두고 비격식 대화문, TV 토론, 국회 토론 등의 자료에 나타난 *esto*, *eso*, *aquello*를 분석하되 거리감(*distancia*), 담화(*discurso*), 간주관성(*intersubjetividad*)로 분석틀을 세분하여 연구한 바 있다. De Cock는 *aquello*의 경우 화자-청자의 상호작용 밖에 있고 주로 지난 일에 대한 서술을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매우 제한되어있다고 보았고, *esto*와 *eso*의 용례를 거리감, 담화, 간주관성 등의 척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지시사의 직시용법은 일반적으로 *esto*는 근거리(*distancia proximal*),

-
- (예) a. Un poco de silencio, un buen libro y una buena compañía; **eso** es lo único que pido.
b. Luis desoyó los consejos de su madre; **eso** le trajo muchos problemas.
(Vergara Fernández 2012, 150)

*eso*는 중거리(*distancia medial*), *aquello*는 원거리(*distancia distal*)를 나타낸다고 보지만 실물공간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따르기 보다는 대화의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적 위치에 따라 그 쓰임이 결정된다고 본다(Fillmore 1982, Levinson 2004, Eguren 1999). 예컨대, 화자와 청자는 역할이 대화 내에서 끊임없이 바뀌므로, 자신의 기준에서 거리감을 지시사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청자인 상대방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거리감으로 해석하도록 지시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대화 참여자가 지시사를 사용할 때 ‘감정적 함축’(connotaciones emocionales)을 표현한다고 본다(Lyons 1977, 677). De Cock(2013)은 스페인어 중성지시사에서 이 함축성의 효과는 한편으로는 ‘개념화된 거리’(distancia conceptualizada),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화된 추상성’(abstracción conceptualizada)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개념화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화자에 의해 형성된 감정의 거리도 멀어진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En aquella época de mi vida” 또는 “ese Franco”라고 했을 때 거리감 전략을 통해 경멸의 표현, 또는 존경의 의미 같은 주관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개념화된 추상성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강조하는 ‘주관성’(subjektividad) 혹은 청자의 반응을 고려한 ‘간주관성’(intersubjetividad)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Achard(2001)는 중성지시사는 추상적인 것을 가리키며, 화자와 청자가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틀’(atención conjunta)(Diessel, 1999) 안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인지적 조작’(manipulación cognitiva)을 통해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De Cock(2013)는 지시사 사용이 화자의 의도에 청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시체를 찾아가는 ‘간주관성’(intersubjetividad)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⁶⁾

6) Alarcos Llorach(1994, 303)은 지시사가 사용되는 상황은 각 화자의 주관적 견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La situación que señalan los demostrativos no es objetivamente absoluta, sino resultado de la perspectiva subjetiva de cada hablante”)고 말해 지시사 사용에서 ‘주관성’을 지적한 바 있다. ‘언어적 주관성’(subjektividad lingüística)이란 용어는 Benveniste(1966, 259)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이후 Lyons(1977)에 의해 정

Traugott(2003, 18)가 정의한 “간주관성이란 화자/청자가 수신자/독자의 자아에 기울이는 주의의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말한 내용에 수신자가 어떤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인식론적 측면과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과 연관된 체면이나 이미지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회적 의미도 포함한다”.⁷⁾

De Cock(2013)은 스페인어 중성지시사가 화자의 태도와 신념을 나타내는 주관성(subjetividad), 그리고 언급된 표현을 수신하는 수신자의 태도까지 고려한 간주관성(intersubjetividad)을 나타내는 요소로 보고 분석한다. De Cock는 ‘중성지시사 + ser동사’가 쓰인 계사구문, 중성지시사가 담화표지자로서 문법화하여 쓰인 구문, 주제화된 구문으로 나누어 중성지시사 3가지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첫째, ser동사와 중성지시사를 쓴 계사구문은 전형적인 평가(evaluaciones)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때 eso의 경우 (1)의 예에서 보듯 ser 동사의 주어로 쓰여 화자의 의견이나 신념과 같은 평가(evaluaciones)를 나타내는 동시에 청자의 동의를 구할 때 쓴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esto의 동일 구문에서의 빈도는 eso에 비해 떨어지고, 자신의 평가를 내세우되 청자의 동의는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표현으로 쓰이며, aquello의 경우는 거의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 (1) a. Pero se acaba el monedero enseguida. **Eso** es lo malo.

(CORLEC ccon019a)

(De Cock, 2013, 20)

의된 바로는 ‘대화 행위자의 자신에 대한 표현 및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De Cock 13-14에서 재인용).

- 7) “Intersubjectivity is the explicit expression of the SP/W’s(speaker/writer) attention to the ‘self’ of the addressee/reader in both an epistemic sense (paying attention to their presumed attitudes to the content of what is said), and in a more social sense (paying attention to their ‘face’ or ‘image needs’ associated with social stance and identity)”.

또한 중성지시사를 계사동사의 보어가 사람[+humano]인 경우 (2a)와 같이 썼을 때 (2b)에 비하여 (2a)는 중성지시사를 통해 사람을 사물화한 결과가 되므로 공격적인 의미를 표현한다고 본다.⁸⁾

(2) a. **Eso** es Juan.

b. **Ese** es Juan.

단, 이때 문맥이 중요한데, 신원을 확인하는 문장(oración identificativa)에서는 공격하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어떤 일화를 서술하는 묘사로서 쓰인 경우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물리적인 직시 의미가 약화되고 묘사하는 사람에 대한 추상성을 극대화하는 용도로 중성지시사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을 얹잡아 보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이 사람 즉 Juan에 대한 추상적 개념화에 접근하도록 하는 역할을 중성지시사가 하고 있다고 De Cock(2013)은 설명한다.

따라서 ‘평가’를 나타내는 계사구문에서 eso는 화자의 신념과 의견을 나타내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간주관성이 매우 높은 구문에서 사용되는 반면, esto는 담화 내에서 바로 언급되었던 것을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화자의 의견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간주관성 면에서는 중립적인 구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esto는 주관성이 있는 화용적 맥락에서 eso는 간주관성이 있는 화용적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본다.

둘째, 중성지시사가 담화표시자(marcadores discursivos)로서 문법화(gramaticalización)되어 쓰인 경우는 esto es, eso es, por eso, por esto와 같이 굳어진 표현으로 담화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RAE(2009, 1308)에서도 역시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사람을 확인하는 문맥에서 중성지시사를 쓴 경우 공격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 a. Esto es el nuevo equipo de fútbol.

b. El nuevo director era eso, un experto en mercadotecnia.

c. Esto es un equipo y todos estamos metidos en el mismo ajo.

- (3) El tema sería la gestión, **esto es**, digamos, la presentación del servicio.
(CORLEC ccon028a, De Cock, 2013, 20)

위 예 (3)에서 *esto*는 바로 앞에 나온 단어 *la gestión*을 가리키는데 앞선 단어와 *esto*를 등가로 놓으면서 앞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재형상화’(reformulador)하는, 즉, 자신의 담화를 두드러지게 하는 표시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때 청자의 동의를 특별히 구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eso es*는 ‘반응의 표시자’(marcador reactivo)로서 사용되었는데 아래 (4)의 예를 보면 청자의 담화에 긍정의 반응을 표시하는 표시자이다.⁹⁾

- (4) A: Poco vinagre, salada y bien aceitada, **eso es**.
B: **Eso es**, sí. Sí, el aceite, el aceite la que le hace.
(CORLEC ccon019a, De Cock, 2013, 25)

(4)에서 보듯 *eso es*는 상대방이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응원하거나 계속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자로 사용하고 있어서 함께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간주관성이 역시 확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고 반응하는 (5)와 같은 병원에서의 대화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5) Apriétalos, apriétalos. **Eso es**. Ahora aflójalos, aflójalos. Muy bien.
(CREA, De Cock, 2013, 27)

즉 (5)에서는 담화가 아닌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승인 및 인정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De Cock은 ‘좌측 이동한 주제화 구문’(topicalización mediante la dislocación a la izquierda)에서 사용된 중성지시사의 용법을 분석한다.

9) Parodi y Burdiles(2019)에서는 재형상화 또는 반응의 표시자 대신 중성지시사의 기능을 담화 내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하나로 싸는 기능’(encapsulador)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6) - Total una tarjeta de esas cuesta cuatro mil pesetas.
 - Sí, **eso** es que no merece la pena, vamos, porque...
 (CORLEC ccon005a, De Cock, 2013, 28)
- (7) ¡Cómo me va a caber una pierna si el otro día en la procesión de Semana Santa vimos a unos chicos corriendo! **Eso** es que tengo que caber entera.
 (CORLEC ccon032a, De Cock, 2013, 29)

(6)은 좌측 이동 주제화 구문으로 que 이하의 “no merece la pena”의 주어인 eso가 que 구문 밖으로 이동한 구문이며 (7)의 경우는 “Tengo que caber entera en eso”에서 eso가 좌측 주제화 되었지만 통사적으로 보면 선행사가 될 수 없는 비문이다. 하지만 원어민 화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구문이다. 두 예문 모두에서 청자가 주어진 정보를 가공(manipulación)하여 화자가 의도한 해석을 함께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역시 간주관성이 확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6)보다 (7)이 청자의 해석에 대한 인지적 노력이 더 크게 요구된다.

이처럼 화용적 맥락에서 스페인어 중성지시사를 코퍼스 분석으로 통해 분석한 De Cock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Esto, eso, aquello의 화용적 의미(De Cock 2013, 30)

	<i>Esto</i>	<i>Eso</i>	<i>Aquello</i>
Distancia	Proximal	Medial	Distal
Participante	Área del hablante	Área del oyente	Fuera de la interacción
Usos no situacionales	Discurso del hablante	Discurso del oyente	Fuera de la interacción
	Deixis discursiva ¹⁰⁾	(Intersubjetividad) e interacción	Casi ausente del discurso interaccional

10) De Cock(2013)는 esto의 이 담화상 바로 전에 언급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을 ‘deixis discursiva’(담화직시)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직시(deixis)를 상황의존적인 의미로 한정하여 쓰고, 화자와 청자의 담화 상황이 전제되지 않은 이 경우는 대용용법(anáfora)이라고 본다.

즉, 거리감에 따라 직시용법으로 사용될 때 *esto*는 근거리, *eso*는 중거리, *aquello*는 원거리를 나타내고 이때 기준이 되는 영역은 *esto*는 화자의 영역, *eso*는 청자의 영역, *aquello*는 화자-청자의 상호작용 영역 밖을 의미한다. 비상황적인 문맥, 즉 담화 내에서 쓰인 *esto*는 바로 앞에 제시된 부분을 가리키는 ‘담화 직시(*deixis discursivo*)’ 즉 ‘대용 용법(*uso anafórico*)’으로 쓰인 반면, *eso*는 화자가 주관적인 판단과 신념을 표현하되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상호작용 구문에서 사용되거나, 화자가 청자의 행동 혹은 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제공하는 등 항상 청자의 반응을 고려한 간주관성이 높은 표시자로 사용된 반면, *aquello*는 상호작용 담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다.

대용용법으로 쓰일 때, *esto*와 *eso*의 차이는 *esto*가 지시하는 문장이 바로 앞이나 뒤에 바로 인접해서 나와야하는 제약이 있는 반면 *eso*는 수식어가 끼어들어서 지시하는 문장이 비교적 먼 경우도 지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8) a. Aunque no se pueda demostrar, debéis creer en **esto**: Dios existe.
 b. *Debéis creer en **esto**, aunque no se pueda demostrar: Dios existe.
 c. Dios existe. **Eso** es verdad, aunque no se pueda demostrar.
 d. Dios existe. Aunque no se pueda demostrar, **eso** es verdad.

(Eguren 1999, 943)

위 예에서 *esto*의 경우 후방조응(*catafórico*)의 경우 반드시 인접하여 지시하는 내용이 (8a)에서처럼 바로 나와야한다. (8b)처럼 중간에 종속절이 끼어들 경우 *esto*를 사용할 수 없다. (8c)와 (8d)는 전방조응(*anafórico*)의 경우로 *eso*가 인접하든 인접하지 않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esto*의 경우 상황 의존적인 직시용법과 인접한 지시체를 가리키는 대용용법으로 특화되어 있으며,¹¹⁾ *eso*의 경우는 청자의 입장을 고

11) Parodi and Burdiles(2019)에서도 경제에 대한 코퍼스를 분석했는데, *esto*가 바로 언급된 내용을 한 덩어리로 싸서 지시하는 ‘encapsulador’의 역할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았다. Encapsulador 란 용어는 대용용법(*uso anafórico*)이라고 볼 수 있다.

려한 화자-청자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간주관성 표현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스페인어의 다른 중성어인 lo와 ello의 변별적 자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I. 중성어 lo와 ello의 변별적 의미 자질

1. Lo와 ello의 역사적 기원

스페인어 중성어 lo의 역사적 기원은 ello와 같이 라틴어의 원거리 중성지시사 ILLUD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중성어로서 추상적인 생각이나 일어난 사건, 앞서 언급된 문장(들)의 명제와 같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면서 대용용법으로만 쓰인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ello는 강세대명사로 주격이나 전치격으로 (todo와 함께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는 반면, lo는 비강세 대명사 혹은 정관사로 쓰여 접어(clítico)의 특성을 반영하여 쓰이므로 두 중성어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라틴어 원거리 중성지시사 ILLUD에서 유래한 정관사 lo, ello, 중성대명사 lo, 원거리 중성지시사 aquello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라틴어 ILLUD에서 나온 스페인어 중성어

라틴어	스페인어 중성어			
중성지시사	정관사	3인칭 강세 대명사	3인칭 비강세 대명사	지시사
주격 중성단수 ILLUD	lo	ello		
대격 중성단수 ILLUD			lo	
ECCU+ 주격 중성단수 ILLUD				aquello

중성어 lo의 경우 현대스페인어에서 정관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명사로도 사용되어 그 문법 범주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었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기원을 살펴보면 중성 지시사 ILLUD의 주격에서 정관사가 유래되었고, 대격

에서 대명사가 유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어의 격에 따른 다른 쓰임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성관사와 중성대명사의 용법을 모두 합쳐서 중성어 *lo*의 용법으로 보았다.

2. CREA 3개 인터뷰 코퍼스(1996)에 나타난 중성어 *lo*와 중성지시사 및 *ello*의 빈도 비교

기존 선행연구에서 코퍼스에 기반하여 스페인어 중성어 다섯 개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 연구가 없으므로, *CREA*(Corpus de Referencia del Español Actual)¹²⁾의 현대스페인어 구어 코퍼스에서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 *lo*, *ello*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스페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에서 녹음된 1996년 3건의 인터뷰 내용에 한정하였는데, 해당 코퍼스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해당 CREA 코퍼스 3종 (1996)

- (1) *La vida según...* Peret, 06/11/96, TVE 2
- (2) *Desayunos de Radio Nacional*, 05/11/96, TVE 1
- (3) *Los desayunos de Radio Nacional*, 30/05/96, RNE 1

〈표 5〉 CREA 3개 인터뷰 코퍼스(1996)에 나타난 스페인어 중성어의 사용 비율

TOTAL	<i>esto</i>	<i>eso</i>	<i>aquello</i>	<i>lo</i>	<i>ello</i>
383	24	99	4	252	4
100%	6.27%	25.85%	1.04%	65.80%	1.04%

중성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형태로는 *lo*가 65.80%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어서 중성지시사 중 *eso*의 비율이 25.85%로 뒤를 이

12) <http://corpus.rae.es/creanet.html>

13) CREA에서 1996년 라디오/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3건의 구두 인터뷰에서 *lo*가 쓰인 용례는 총 275건이 검색되었으나 이 중 말실수로 사용된 3건을 제외하면 272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동형의 남성단수직접목적격 대명사로 쓰인 예는 23개에 불과하여 8.46%에 그쳤고 249건에 해당하는 91.54%는 모두 중성어 *lo*로 쓰인 예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 *lo*는 남성단수 직접목적격대명사보다는 중성어로 쓰인 쓰임이 넓은데, 학습자들에게 중성어 *lo*에 대한 설명이 교재나 수업내용에서 주

었고, esto는 6.27% 사용되었고, aquello와 ello는 1.04%로 상대적으로 사용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Eguren(1999)은 중성지시사는 다른 지시사처럼 ‘직시적 위치 확인’(la localización deíctica)와 ‘지시적 정체성 확인’(identificación referencial)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본다. 그런데, 중성어 lo는 대명사로 쓰인 용법이나 정관사로 쓰인 용법이나 모두 직시적 위치 확인의 의미는 없고, 지시적 정체성 확인만 갖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지시사가 ‘직시성’과 ‘대용성/한정성’이 있다면 lo는 ‘대용성/한정성’만 있는 셈이다. 따라서 화자가 lo를 써서 말할 때 청자가 지시체를 확인하기를 요구하지만 직시적 상황에는 근거하지 않고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부분을 지시하는 대용용법이나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한정성을 나타내는 lo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중성어 lo는 정관사로 쓰여서 뒤에 따라오는 성분을 명사화(sustantivación)하는 쓰임과 미리 언급된 내용을 전방조응지시로 받거나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구나 관계사절의 선행하는 요소로 쓰여 후방조응지시를 하는 대명사로 쓰인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당연히 lo가 중성관사로 사용될 때는 대용성은 없고 한정성만 있다. 반면, 중성대명사로 사용된 경우는 한정성을 포함하는 대용성이 있다.

Lo를 쓴 일부 구문들은 eso, eso, aquello와 같은 중성지시사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주로 대용용법으로 쓰인 대명사 용법의 lo만 가능하고, 한정사 즉, 정관사로 쓰인 lo의 용법은 대체가 불가하게 보인다. Lo를 대체할 수 있는 중성지시사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는 eso이다.

Eguren(1999)은 eso로 바꾸어 쓸 수 없는 lo 용법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Eguren(1999, 948)에서 제시된 예문 4개를 Bosque y Moreno(1990)가 구분한 중성관사 lo의 3가지 용법인, 개체의 lo(lo individuativo), 질적인 lo(lo cualitativo), 양

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육 현장에서 중성어 lo의 쓰임을 보다 강조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인 lo(lo cuantitativo)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 (9) a. {Lo/*Eso} interesante del libro [individuativo/cualitativo]
- b. {Lo/*Eso} agradable de conducir de noche [cualitativo]
- c. Me gusta {lo/*eso} difícil de la empresa [individuativo/cualitativo]
- d. Come {lo/*eso} imprescindible [cuantitativo]

(Eguren 1999, 948)

(9)의 예들은 중성관사 lo가 이어지는 형용사를 명사화한 구문으로 함께 쓰인 형용사는 질적 평가의 의미가 있는 형용사들이다. (9a)에서는 ‘재밌는 부분’으로 해석되면 개체(entidad)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재밌는 정도’로 해석되면 ‘질(calidad)’로 해석되며 화자가 주관적인 평가가 더 강조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9c) 역시 각각 그 회사의 ‘어려운 점’과 ‘어려운 정도’로 개체 또는 질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9b)는 밤에 운전하는 ‘그 아늑한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질적인 해석이 되며, (9d)의 경우 ‘꼭 필요한 만큼의 양’을 뜻하므로 양적인 해석이 lo를 통해 나온다. 따라서 중성관사로 lo가 뒤에 오는 형용사를 명사화할 때, 개체, 질, 양을 지칭할 수 있고, 명사화 역할은 관사 고유의 문법적 기능이므로 이미 대명사인 중성지시사는 이 용법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3. CREA 3개 인터뷰 코퍼스(1996)에 나타난 스페인어 중성어 lo의 구문 유형

이제 다시 CREA 중성어 코퍼스 분석으로 돌아가서 중성어 lo가 쓰인 구문들의 유형을 구분해보자. 일단 lo가 앞에 언급된 추상적 생각이나 명제를 지시하는 ‘대용용법’(uso anafórico)으로 쓰인 경우와 처음 언급되지만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지시체가 확인 가능한 것임을 나타내어 불러일으키게 하는 ‘한정용법’(uso definido)으로 쓰인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표 6>의 1부터 5까지는 중성관사 혹은 중성 대명사로 쓰인 용례를 구문 유형에 따라 빈도순대로 나열한 것이며, 마지막 6에서는 por lo tanto, por lo menos, por lo visto, a lo

〈표 6〉 CREA 3개 인터뷰 코퍼스(1996)에 나타난 스페인어 중성어 lo의 구문 유형

	구문 유형	용법	범주	용례	%
1	Lo que + 문장	한정용법 명사절 ‘~하는 것’	중성대명사	103	41.4%
2	Lo (O.D.)	대용용법	중성대명사	59	23.7%
3	Lo + 형용사/부사 (과거분사/후치소유사)	한정용법 명사화 (개체, 질, 양)	중성관사	32	12.9%
4	Lo + de 전치사구	한정용법	중성대명사	14	5.6%
5	, (전치사) lo +que/ cual + 문장	대용용법 설명적 관계사절	중성대명사	10	4.0%
6	전치사 +lo + 형용사/부사	문법화한 굳어진 표현	중성관사	31	12.4%
TOTAL				249	100%

mejor처럼 문법화 되어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 용례를 나타낸 것이다.

첫째, 가장 많이 쓰인 중성어 lo의 용법(41.4%)은 ‘lo que 관계절’로 쓰여서 ‘~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 명사절을 만든 구문이다. 103건이 나왔는데, 이때 lo는 선행사 없이 명사절을 만든 구문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관계사절이라기 보다 lo가 관계사절을 명사화 한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10) a. No entiendo bien **lo** que pasa.

b. No entiendo bien **{esto/eso}** que pasa.

(Vergara Fernández 2012, 149)

명사절로 사용된 lo que 구문은 (10)에서 보듯 esto/eso que 구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¹⁴⁾ 사실 명사절에 쓰인 lo는 중성대명사 혹은 중성관사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구문이라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명사절의 lo는 명사화 구문이지만 중성지시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로 본다.¹⁵⁾

14) Lo que + 문장이 명사절을 나타낼 때 의무의 동사를 쓴 다음과 같은 예의 lo는 중성지시사로 바꾸어 쓸 수가 없다: {Lo/*Eso} que hay que hacer es parar la guerra de Bosnia (Eguren 1999, 948). 따라서 명사절의 lo를 중성지시사로 대체가능여부는 que 이하의 동사의 상이나 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미론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해석해야하는 복잡한 과제로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는 더 이상 상세히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Lo que 명사절 구문의 que이하 관계절에 접속법이 사용될 경우 (11)에서 보듯 선행사 lo는 불특정성을 갖는데, 이때는 esto나 eso는 쓸 수 없고 aquello만 쓸 수 있다.

- (11) a. Sólo {lo/aquello} que aprendas razonando te quedará.
b. *Sólo {esto/eso} que aprendas razonando te quedará.

(Eguren 1999, 939)

Esto와 eso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문맥을 상정하므로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문에서는 쓸 수 없는 반면 중성지시사 aquello가 화자/청자의 상호작용 영역 밖의 지시체를 가리키는 원거리의 의미가 중성어 lo의 불특정의 의미와 의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접속법이 쓰인 관계사 구문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앞에 선행사가 되는 문장이 있고 콤마로 이어지는 설명적 관계사 구문을 이룬 경우는 빈도상 다섯 번째에 해당(4.0%)하는데 이 설명절 관계사 구문은 앞서 제시된 명사절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두 10건에 불과하였는데 “, con lo cual” 5건, “, lo cual” 3건, “, lo cual” 1건, “, lo que” 1건, “Dicho lo cual,” 1건이었다. 이 구문에서 관계절에 쓰인 lo는 대용적 용법으로 앞에 언급된 문장을 가리키는데, 만일 lo를 중성지시사로 바꾸게 되면 관계사 que나 cual를 생략해야 하는 제약이 발생한다.

- (12) a. Se levantó tarde, por **lo que** llegó atrasado.
a'. Se levantó tarde, por **eso** llegó atrasado.
b. Los invitó a conectarse con ustedes mismos, a abrirse al mundo y a los otros, **lo que** producirá cambios en su comportamiento.
b'. Los invitó a conectarse con ustedes mismos, a abrirse al mundo y a los otros, **eso** producirá cambios en su comportamiento.

(Vergara Fernández 2012, 149)

15) 강조 구문의 변이형에서 “No sabía lo que lo quería(No sabía cuánto lo quería)”와 같은 구문에서는 lo는 지시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Vergara Fernández, 2012, 149).

(12a)에서 비강세 대명사인 lo는 que절에 음운적으로 기대어 받음되는 접어인 반면, (12a')에서 보듯 중성지시사는 강세대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que 이하의 관계절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b')는 (12b)와 비교하여 eso가 강세대명사로 주어의 위치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역시 음운적 이유로 que 이하의 관계절이 필요하고 의미적으로도 한정성만 있는 lo보다 직시성까지 있기 때문에 청자가 지시체에 접근하기가 쉽다고 보아 바로 주어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인 용법은 중성대명사 lo가 문장(37건)이나 동사구(13건), ser동사의 보어(8), 상황(1)을 대신하여 쓰인 대용용법(23.7%)이다. 대용용법 합계는 59건이었다.

- (13) a. Me acuerdo de la primera mujer que me enseñó lo que era una mujer. Esto sí me acuerdo. ¿Sí? Sí, no lo olvidaré nunca.

(CREA, entrevista en *La vida según... Peret*, 06/11/96, TVE 2)

- a'. Me acuerdo de la primera mujer que me enseñó lo que era una mujer. Esto sí me acuerdo. ¿Sí? Sí, no olvidaré **eso** nunca.

- b. él había dicho que después de dos mandatos no volvería a presentarse y lo ha hecho.

(CREA, entrevista en *Desayunos de Radio Nacional*, 05/11/96, TVE 1)

- b'. él había dicho que después de dos mandatos no volvería a presentarse y ha hecho **eso**.

(13a)의 lo는 앞문장 “me enseñó lo que era una mujer”을 지시한다. (13b)는 “no volverse a presentarse” 동사구를 지시한다. 양자에 쓰인 lo를 eso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lo는 접어이므로 동사 앞에 쓰이지만, eso는 강세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반면 계사동사의 보어인 형용사를 대신한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는 lo를 eso로 대체하여 쓸 수 없다.

- (14) En los otros procesos del gal que hay otros procesos ahí y algunos extraordinariamente espeluznantes. No es que haya otros que no lo sean, pero algunos, como por ejemplo, lo de Lasa y Zabala son espeluznantes.

(CREA, entrevista en *Desayunos de Radio Nacional*, 05/11/96, TVE 1)

(14)의 lo는 앞서 제시된 “espeluznantes” 형용사를 대신하여 쓴 대용용법인데, 이 경우는 중성지시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lo를 eso로 대체할 경우 eso는 앞서 제시된 형용사 “espeluznantes”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된 명제, 그 뒤에 이어질 내용 등 지시체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어 원래 lo를 쓴 지시표현이 가지고 있었던 명확성이 흐려진다.¹⁶⁾ 즉 형용사로서 속성을 대용용법으로 받은 이 용법에서 lo는 전방조응에 한정되는 점이 eso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쓰인 용법은 ‘lo + 형용사/부사’로 lo가 정관사로 쓰여 구 전체를 명사화한 경우로 총 26건이었는데, 이중 개체(entidad)를 나타내는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이나 정도(calidad o grado)를 나타낸 경우가 1건, 양(cantidad)을 나타낸 경우가 1건이었다.

- (15) a. **lo** malo es cuando eres fanático de una denominación. (CREA, entrevista en *La vida según... Peret*, 06/11/96, TVE 2)
 b. Tú te casaste por el rito gitano, por **lo** civil y por la iglesia, creo. (CREA, entrevista en *La vida según... Peret*, 06/11/96, TVE 2)
 c. en comercio no estamos **lo** suficientemente bien parados, tenemos que mejorar. (CREA, entrevista en *Los desayunos de Radio Nacional*, 30/05/96, RNE 1)
 d. Que soy experto en la otan Señor Santasmases, que **lo** menos va a tener usted diez segundos para hablar de la otan. (CREA, entrevista en *Desayunos de Radio Nacional*, 05/11/96, TVE 1)

16) 본고에서 제시된 lo와 eso의 대체 가능성과 의미상 변화에 대한 직관은 원어민 화자들에게 자문을 구해 얻은 것임을 밝힌다.

(15a)의 “lo malo”(나쁜 것)과 (15b)의 “lo civil”(시청을 통한 방법)은 모두 개체(entidad)을 가리키고, (15c)의 “lo suficientemente bien parados”(충분한 정도로 좋은 상태에 있는) 경우는 정도(grado)를 가리키는 질(calidad)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15d)의 “lo menos”는 10초라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므로 양(cantidad)을 나타낸다. 모두 중성관사로서 쓰인 lo 용법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때는 중성지시사로 대체할 수 없다.¹⁷⁾

이처럼 중성관사로 사용된 lo의 용법에 ‘lo+과거분사’ 4건, ‘lo+후치소유사’ 2건을 포함시킬 수 있겠고 그러면 총 용례는 32건으로 집계(12.9%)된다. 예는 다음 (16)과 같다. 이 경우 모두 개체를 나타내는 경우로 중성지시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 (16) a. yo creo que después de **lo** ocurrido, bueno, iba a decir que yo soy una persona que soy optimista por naturaleza. (CREA, entrevista en *Desayunos de Radio Nacional*, 05/11/96, TVE 1)
 b. Creo que él, el Pesca es un artista único en **lo** suyo.
 (CREA, entrevista en *La vida según... Peret*, 06/11/96, TVE 2)

(16a)의 “lo ocurrido”는 ‘일어난 일’을 (16b)의 “lo suyo”는 ‘그 자신의 영역’이라는 개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시 lo의 관사로서의 쓰임이다.

네 번째로 많이 쓰인 용법(5.6%)은 ‘lo + de + 명사/대명사’ 구문인데, 14건이 있었다. 이 구문은 de 이하 전치사구가 lo를 수식하는 경우와 동격의 의미를 갖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17a)의 “lo de ayer”라는 표현에서 ‘어제 일어난 그 일’을 가리키는데 lo는 수식어의 도움으로 화자는 청자와 공유

17) Eguren(1999, 948-949)은 일명 유사관계사 구문(construcciones pseudorrelativas)에 서도 lo 대신 eso를 쓸 수 없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한다. 이 구문들은 ‘lo + 형용사/부사 + que + 문장’으로 써서 정도가 최대치를 의미하는 일명 ‘강조의 lo 구문’(lo enfático)이다.

(예) a. Me sorprendió {lo/*eso} grande que es Andalucía.
 b. No sabía {lo/*eso} lejos que estaba el Cabo Norte.

하는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한 지시체에 청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경우는 (17b)의 “lo de levantarme pronto”처럼 ‘일찍 일어나는 그 일’에서 보듯 de 이하에 나온 내용을 lo가 단순히 다시 동격으로 받는 일명 ‘사실 의미’(significado factivo)로 쓰인 경우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지시체의 한정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양자 모두 ‘한정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7) a. {Lo/Eso} de ayer fue impresionante.
 (Vergara Fernández, 2012, 150)
 b. {Lo/Eso} de levantarme pronto me sienta fatal.
 (Eguren 1999, 948)
 c. {Lo/Eso} de la dimisión de Felipe González.
 (Eguren 1999, 947)
 d. {Lo/Eso} de que llamen tonto no le gusta nada.
 (Eguren 1999, 948)

(17)에서 보듯이 lo + de 전치사구의 lo는 모두 eso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유는 eso가 중성지시사 중 위치에 의한 직시성이 가장 낮은 반면, 대용이나 한정용법으로 폭 넓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문법화한 굳어진 표현(12.4%)으로는 총 31건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당연히 문법화한 굳어진 표현이므로 lo는 중성지시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표 7> CREA 3개 인터뷰 코퍼스(1996)에 나타난 중성어 lo가 쓰인 문법화한 표현

	의 미	용 레
por lo tanto	그러므로	19
por lo menos	적어도	4
por lo visto	보다시피	3
a lo mejor	아마도	3
a lo sumo	최대치로	1
lo antes posible	최대한 빨리	1
TOTAL		31

가장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은 표현은 por lo tanto였고, por lo menos, por visto, a lo mejor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중성어 lo는 중성관사로 쓰인 lo의 용법 중 형용사/부사와 함께 써서 개체, 질, 양을 나타내는 경우는 중성지시사로 대체가 불가하며, 중성대명사로 사용된 경우 전방조응의 의미에 한정됨을 알 수 있었다. Lo는 직시 용법으로 쓰이지는 않고 한정용법과 대용용법으로만 사용된다.

4. 중성대명사 ello의 변별적 자질

중성대명사 ello¹⁸⁾는 앞에 제시된 추상명사들이나, 사건이나 상황, 사물의 상태 등의 나타내는 문장이나 명제를 지시하는 대용용법으로 사용되며 주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18)과 같이 쓰일 수 있다.

- (18) a. Si algo ocurriera, **ello** sería público.
 b. Tú sueñas con el casamiento, no haces más que hablar de **ello**.
 c. Lo celebramos en un restaurante, a la sombra de un granado, con cordero asado, ensalada, avellanas y almedras, **todo ello** regado con cerveza.

(RAE 2010, 303)

이때 (18c)와 같이 ello는 todo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RAE(2010, 303)에서는 ello가 중성지시사 eso와 비슷한 대용용법으로 쓰인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eso가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된 “Eso es lo que dijo”와 같은 구문에서는 ello로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eso의 간주관성의 화용적 의미는 ello에게 없고 중립적인 대용적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llo가 직접 목적어로도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양화사(cuanti-

18) Ello를 él, ella와 같은 3인칭 인칭대명사(pronombre personal)로 보아 사람을 가리킨다고 본 학자들(Fernández Soriano, 1999)도 있지만 Satorre Grau(2002)는 ello는 절대 사람을 가리킬 수 없고 다른 중성어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명제 등을 가리킨다고 본다. 이는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가 사람을 가리킬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본다.

ficador) todo를 항상 붙여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되면 비문이 된다고 Satorre Grau(2002, 366)에서 지적하고 있다.

- (19) a. Recogió del suelo libros y cuadernos, y dejó **todo ello** sobre la mesa.
 b. *Recogió del suelo libros y cuadernos, y dejó **ello** sobre la mesa.
 c. El bibliotecario recogía del depósito los libros y colocaba **todos ellos** en los estantes.
 d. *El bibliotecario recogía del depósito los libros y colocaba **ellos** en los estantes.

(Satorre Grau 2002, 366)

(19)의 예를 보면 나열된 명사 여러 개를 대명사로 대체할 때 직접목적격대명사인 los를 쓰는 것이 권장되는데, 대신 ello를 쓸 경우는 ello의 표준적으로 사용된 통사적 위치가 아니므로 todo를 함께 써서 앞에 출현한 모든 명사를 다 아우르는 것을 지시함을 보다 명확히 한다고 볼 수 있다. (19a)에서 사용된 명사구가 무관사로 출현했기 때문에 개체(entidad) 보다는 유형(clase)을 나타낸다고 보고 중성대명사 강세형 ello를 사용한 반면 (19c)에는 정관사를 동반하여 명사구가 쓰였으므로 개체성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남성복수형 강세형 ellos를 쓴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ello는 중성어이기 때문에 개체성이 남성/여성 강세 대명사보다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REA 인터뷰 코퍼스에서 ello가 쓰인 구문을 살펴보자.

- (20) a. Entonces por qué estuviste tantos años en esa especie de multinacional de La Biblia en la que te metiste. Te repito de que **ello** no estaba participando... (CREA, *La vida según... Peret*, 06/11/96, TVE 2)
 b. Viene usted de Lausanne y dentro de unas pocas horas y tal Así es acompañando a los Reyes. A Chile. Así es. Bueno. Bienvenido a los desayunos, ahora hablaremos de **todo ello**. (CREA, *Los desayunos de Radio Nacional*, 30/05/96, RNE 1)
 c. Pues sí me parece que, además de protocolario, este abrazo es

simbólico. Simbólico de lo que ustedes mismos acaban de decir, de las buenas relaciones entre el gobierno de España y el gobierno vasco(...), y **todo ello**, sinceramente, me parece positivo... (CREA, *Los desayunos de Radio Nacional*, 30/05/96, RNE 1)

- d. de iniciar una mínima liberalización de la economía y de algunos aspectos políticos, aunque sea un proceso a largo plazo. Claro, eso no se ha hecho y intentamos que se haga y **todo ello** sin reducir siquiera la ayuda humanitaria a Cuba, ... (CREA, *Los desayunos de Radio Nacional*, 30/05/96, RNE 1)

모두 4건에 불과(1.04%)했는데, (20a)에서 ello는 “(yo) no estaba participando en ello”에서 ello가 주제화되어 나온 구문인데, “esa especie multinacional de La Biblia”를 가리킨다. 여기서 ello는 앞서 지시된 명사구의 성과 무관하게 중성을 씌으로써 화자 입장에서 정의하기 어려운 단체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20b)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자’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20c)와 (20d)도 역시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가리키며, (20c)의 경우는 주어로, (20d)는 독립된 명사구로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ello는 앞에 언급된 추상적 생각이나 명제를 지시하는 대용용법(uso anafórico)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IV. 중성지시사 esto, eso, aquello, 중성어 lo, 중성대명사 ello의 지시표현에서 요구되는 인지 상태의 위계구조

본장에서는 스페인어 중성어 esto, eso, aquello, lo, ello의 다섯 가지 형태의 쓰임을 화자가 중성어들을 이용해 지시표현을 할 때 상정하는 청자의 지시체에 대한 인지적 상태를 등급화한 위계구조를 모델링함으로써 변별적 차이를

19) 중미 일부지역에서 “Ello hay maíz”와 같은 예문에서 쓰인 허사주어로 사용된 ello의 경우는 한정성이나 대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허사 주어의 ello가 요구하는 인지 상태는 반드시 본고에서 정의한 ‘대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허사주어 ello는 규범 스페인어 문법에서 비문으로 보므로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설명해보고자 한다.

Gundel, Hedberg and Zacharski(1993)는 다양한 한정사와 대명사가 각기 다른 인지적 상태를 표시한다고 보고 일명 ‘The Givenness Hierarchy’(주어진 인지 상태에 대한 위계구조)라는 범언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시표현들의 위계 모형을 제시한다. 이들에 의하면 지시표현은 화자가 가정하는 청자의 지시체에 대한 인지적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화자가 수신자인 청자의 지식과 주의 상태 등을 맥락 내에서 파악한 후 지시체의 인지적 상태를 가정하면서 지시표현을 선택하게 된다고 본다. 이들은 6가지의 가능한 인지적 상태를 아래 도식과 같이 위계화하고 있는데, 특징은 상위의 인지적 상태는 이미 하위에 있는 모든 인지적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in focus	>	activated	>	familiar	>	uniquely identifiable	>	referential	>	type identifiable
<i>it</i>		<i>that</i> <i>this</i> <i>this N</i>		<i>that N</i>		<i>the N</i>		<i>indefinite this N</i>		<i>a N</i>

〈그림 1〉 The Givenness Hierarchy (Gundel, Hedberg and Zacharski 1993, 275)

이들은 영어의 지시사, 관사, 대명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유형으로서 확인 가능한’(type identifiable) 경우가 지시표현 중 가장 인지적으로 낮은 상태를 가리키는데 지시표현에 의해 그려지는 지시체의 유형에 청자가 접근 가능함을 가리키며, 이 단계는 부정관사 “a”가 충족한다. 비한정 의미로 쓰인 “this N”는 다음 상위단계인 ‘지시의’(referential)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그리고 있는 지시체가 특정 사물이라는 특정성을 청자가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관사가 쓰인 명사구 “the N”는 ‘유일하게 확인 가능한’(uniquely identifiable) 상태를 충족하는데, 이는 명사구 내의 정보만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공유하는 내용이라는 한정의 의미를 부여할 때 쓰인다. 지시사 “that N” 구문은 지각이나 이미 언급된 문장들을 통해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청자에게 ‘익숙한’(familiar) 인지 상태를 상징한다. 반면, 대명사로 쓰인

“that”과 “this”, 혹은 “this + N”는 문맥이나 상황에서 단기 기억으로 ‘활성화된’(activated) 지시체의 인지 상태를 가리키며, “it” 대명사를 쓴 경우는 이미 언급되어 알려진 지시체가 관심의 중심이 되어 ‘초점화’(in focus)하는 인지 상태로 지시체에 대한 청자의 인지 상태가 가장 높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 도식을 스페인어의 esto, eso, aquello, lo, ello를 쓴 지시표현에서 요구되는 인지 상태를 비교설명하기 위해 중성어를 쓴 지시표현이 요구하는 인지 상태를 4단계로 수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스페인어의 여타 중성어를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자질은 한정성이다. 따라서 화자가 상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지시체에 대한 청자의 인지적 상태는 유일하게 확인 가능한 상태 즉 ‘한정’(definido)으로 보았다. 한정적이면서 앞서 문맥에 제시된 단어나 문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anafórico) 용법이 그 다음 윗 단계이고, 한정과 대용에 더불어 상황적으로 접근 가능한 ‘직시’(deíctico)를 그 윗 단계로, 마지막으로 화자가 자신의 관점이나 의견을 강조하고자 하거나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화용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를 ‘초점’(en foco)으로 보아 스페인어 중성어 지시표현에 필요한 인지적 상태를 재모델링 해보았다. 즉 초점(en foco) > 직시(deíctico) > 대용(anafórico) > 한정(definido) 순이며, 상위의 인지 단계는 하위의 모든 인지 단계를 포괄한다.

초점(en foco) >		직시(deíctico) >	대용(anafórico) >	한정(definido)
간주관성 intersubjetividad	주관성 subjektividad			
<i>eso</i>	<i>esto</i>	<i>esto</i> <i>eso</i> <i>aquello</i>	<i>ello</i> <i>lo</i> pronominal	<i>lo</i> artículo

〈그림 2〉 Jerarquía de los estados cognitivos requeridos por los neutros en español
(스페인어 중성어가 요구하는 인지 상태의 위계구조)

<그림 2>는 스페인어 중성어가 요구하는 인지 상태의 위계구조를 도식한 모델이다. 스페인어의 중성어 5가지 형태는 기본적으로 ‘한정’ 자질을 공유

하며, 가장 낮은 인지 단계인 ‘한정’ 자질을 충족하는 것은 중성관사로 쓰인 *lo*의 용법이다. *Ello*와 중성대명사로 쓰인 *lo*는 앞에 언급된 사실이나 명제를 지시하는 ‘대용’용법으로 쓰이며 그 윗 단계의 인지 상태가 요구된다. *Esto, eso, aquello*를 쓰려면 정체성 확인 외에 직시적 위치 확인(*la localización deíctica*)의 인지적 정도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것은 ‘직시’ 단계이다. 반면, *esto*가 화자의 신념이나 태도를 강조하는 ‘주관성’의 표현으로 쓰이거나 *eso*가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줄 때 사용하는 보다 간주관성이 확대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초점’이라는 가장 강력한 인지 상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위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스페인어 중성어 *esto, eso, aquello, lo, ello*의 다섯 가지 형태가 [*-discreto*](경계가 명확하지 않는)를 기본 의미자질로 공유한다고 보고, 각각의 형태가 어떤 변별적인 의미 자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적용한 연구 방법은 각 형태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을 분석한 통시적 방법과 함께 코퍼스 분석과 같은 양적 분석과 중성어들이 사용된 각각의 지시표현이 요구하는 인지 활성화 정도를 분석한 인지언어학 기반의 질적 분석과 같은 공시적 접근방법이었다.

이러한 다각도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스페인어 중성어 다섯 가지 형태의 쓰임에 있어서 빈도를 비교하고 화자가 각 중성어를 이용해 지시표현을 할 때 상정하는 청자의 지시체에 대한 인지적 상태를 등급화 함으로써 변별적 차이를 설명해보았다. 연구결과로 Traugott(2003)의 ‘주관성 이론’(Theory of Subjectification)과 Gundel, Hedberg and Zacharski(1993)의 ‘주어진 인지적 상태의 위계모형’(The Givenness Hierarchy)을 바탕으로 스페인어의 *esto, eso, aquello, lo, ello*를 쓴 지시표현이 요구하는 인지 상태를 4단계로 재모델링하여 <스페인어 중성어가 요구하는 인지 상태의 위계구조 (*Jerarquía de los*

estados cognitivos requeridos por los neutros en español)>로 제시하였다. 즉, 초점(en foco) > 직시(deíctico) > 대용(anafórico) > 한정(definido) 순으로 상위의 인지 단계에서 하위의 인지 단계로 위계화 했는데, 특징은 상위의 인지 단계는 하위의 모든 인지 단계를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 위계구조에서 명사구 자체로만 청자가 지시체를 확인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인지 단계인 ‘한정’을 요구하는 단계에는 중성관사로 쓰인 lo가 위치하며, 이미 언급된 정보에 의거하여 지시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용’의 인지 단계는 ello와 중성대명사로 쓰인 lo가 위치하고, 상황적 문맥에서 지시체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직시’ 단계에는 esto, eso, aquello가 위치하며, 가장 높은 단계의 인지상태 활성화를 요구하는 ‘초점’ 단계에는 주관성이 있는 재형상화 표시자로 사용된 esto와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간주관성을 가진 반응의 표시자로 사용된 eso가 위치함을 나타내 각 중성어간의 변별적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스페인어 중성어가 요구하는 인지 상태의 위계구조> 모델은 스페인어의 다섯 개 중성어 간의 변별적 의미자질을 화자가 의도한 지시체에 청자가 어느 정도의 인지 상태를 활성화하여 접근하게 하는지에 따른 위계적인 구조로 효과적으로 설명했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Achard, Michel(2001), “French ça and the Dynamics of Reference”, R. Brend, A. Melby and A. Lommel(eds.), *LACUS Forum 27: Speaking and Comprehending*, pp.49-62.
- Alarcos Llorach, Emilio(1994),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3a ed., Madrid, Gredos.
- Alvar, Manuel y Bernard Pottier(1983), *Morfología histórica del español*, Madrid: Gredos.
- Benveniste, Emile(1966), “De la subjectivité dans le langage”, Benveniste, Emile (ed.),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Gallimard, pp.258-266.

- Bosque, Ignacio y José Carlos Moreno(1990), “Las construcciones con lo y la denotación del neutro”, *Lingüística*, Vol.2, pp.5-50.
- De Cock, Barbara(2013), “Entre distancia, discurso e intersubjetividad: los demostrativos neutros en español”, *Anuario de Letras, Lingüística y Filología*, Vol. I, No.2.
- Dissel, Holger(1999), *Demonstratives, Form, function and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John Benjamin.
- _____(2006), “Demonstratives, joint attention, and the emergence of grammar”, *Cognitive Linguistics*, Vol.17, No.4, pp.463-489.
- Eguren, Luis J.(1999), “Pronombres y adverbios demostrativos. Las relaciones deícticas”, Bosque I. y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Real Academia Española/Espasa Calpe, pp.929-972.
- Fernández Soriano, Olga(1999), “El pronombre personal. Formas y distribuciones. Pronombres átonos y tónicos”, Bosque, I. and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1*, Real Academia Española/Espasa Calpe, pp.1209-1273.
- Fillmore, Charles J.(1982), “Towards a descriptive framework for spatial deixis”, Robert J. Jarvella and Wolfgang Klein(eds.), *Speech, place, and action, Studies in deixis and related topic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pp.31-59.
- Gundel, Jeanette K, Nancy Hedberg and Ron Zacharski(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Vol.69, No.2, pp.274-307.
- Hare, Cecilia(1994), “Y-a-t-il un genre ‘neutre’ en espagnol?”, J. Stolidi(ed.), *Recherches en linguistique hispanique, Actes du colloque d’Aix-en-Provence 20-21 mars 1992*, Aix-en-Provence: Université de Provence, pp.325-329.
- Harley, Heidi and Elizabeth Ritter(1999), “Meaning in morphology: Motivating a feature-geometric analysis of person and number”, Ms. University of Calgary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_____(2002), “Person and number in pronouns: A feature-geometric analysis”, *Language*, No.78, pp.482-526.
- Henríquez Ureña, P.(1939), “Ello”,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Vol.1, No.3, pp.209-229.

- Hinzelin, Marc-Oliver and George A. Kaiser(2007), “El pronombre ello en el léxico del español dominicano”, *Language contact and language change in the Caribbean and beyond*, Wiltrud Mihatsch; Monika Sokol -Frankfurt am Main [u.a.]: Lang, pp.171-188.
- Laca, Brenda(1999), “Presencia y ausencia de determinante”, Bosque I. y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Real Academia Española/Espasa Calpe, pp.891-928.
- Leonetti, Manuel(1990), *El artículo y la referencia*, Taurus.
- (1999), “El artículo”, Bosque, I. and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1*, Real Academia Española/Espasa Calpe, pp.787-890.
- Levinson, Stephen C.(2004), “Deixis”, Horn, Laurence R. and Gregory Ward(eds.),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pp.73-85.
- Lyons, John(1977),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jeda, Almerindo(1984), “A Note on Spanish Neuter”, *Linguistic Inquiry*, Vol.15, pp.171-173.
- (1993), *Linguistic Individuals*, Stanford, CSLI.
- Otheguy, Ricardo(1978), “A semantic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el/la and lo”, M. Suñer(ed.),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241-257.
- Parodi, Giovanni y Gina Burdiles(2019), “Los pronombres neutros ‘esto’, ‘eso’ y ‘aquello’ como mecanismos encapsuladores en el discurso de la economía: coherencia referencial y relacional”, *Spanish in Context*, Vol.16, No.1, pp.104-127.
- Penny, Ralph(1991), *A history of the Span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mino, Natascha and Elisabeth Stark(2006), “Sobre los demostrativos “neutros” del español: esto, eso y aquello”, *Actas del VI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érida, Yutatán, 4-8/9/2006), pp.943-965.
- Real Academia Española(RAE)(2010),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
- Resnick, Merlyn C.(1981), *Introducción a la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Washington,

-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Satorre Grau, Fco. Javier(2002), “Revisión del sistema pronominal español”,
Revista de Filología Española, Vol.82, No.3o-4o, pp.345-380.
- Stark, Elisabeth and Natascha Pomino(2010), “How the Latin neuter
pronominal forms became markers of non-individuation in Spanish”,
Grammaticalization: Current Views and Issu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273-293.
- Traugott, Elizabeth C.(2003),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Raymond Hickey(ed.), *Motives for languag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4-139.
- Vergara Fernández, Viviana(2012), “La forma Lo en tres contextos gramaticales”,
Estudios Filológicos, No.50, pp.147-165.

코퍼스(CORPUS)

- Corpus del Español, creado por Mark Davies, BYU (2000), <<https://www.corpusdelespanol.org>>.
- Corpus del Español centro-peninsular(CORLEC), dirigido por Prof. Dr. Francisco
Marcos Marín de la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con el apoyo de
la Agencia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Programas del V Centenario
(1990-1993)<<http://www.lllf.uam.es/~rmarcos/informes/corpus/corpulec.html>>.
- Corpus de referencia del español actual(CREA), creado por Real Academia
Española <<http://www.rae.es>>. [검색일: 2020년 3월 1일]

양 성 혜

고려대학교
sunghyey@hanmail.net

논문투고일: 2020년 3월 21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20일

Hierarchy of Cognitive Statuses required by Spanish Neuters: *esto, eso, aquello, lo* and *ello*

Sung Hye Yang

Korea University

Yang, Sung Hye(2020), "Hierarchy of Cognitive Statuses required by Spanish Neuters: *esto, eso, aquello, lo* and *ello*",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1), 53-88

Abstract Spanish has five neuters such as *esto, eso, aquello, lo* and *ello* although it doesn't have neuter noun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distinctive semantic features of each form,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y share the same semantic feature [-discrete]. In a quantitative approach, I analyzed each neuter's frequency in three interviews data from CREA(Corpus de Referencia del Español Actual). In a qualitative approach, by applying Theory of Subjectification of Traugott(2003) to The Givenness Hierarchy model of Gundel, Hedberg and Zacharski(1993), I proposed a model based on four related cognitive statuses for explicating the uses of referring expressions with neuters in Spanish: in focus> deictic> anaphoric> definite. Each status entails all lower statuses. *Lo* as neuter article requires the lowest status 'definite' in which the addressee can identify the referent on the basis of the nominal alone. *Ello* and *lo* pronominal require 'anaphoric' status in which the addressee is able to identify the intended referent because its related expressions have already been mentioned. *Esto, eso* and *aquello* require 'deictic' status in which the referent is accessible in situational context. *Esto* used as reformulater with subjectivity and *eso* used as reactive marker with intersubjectivity occupy the highest status 'in focus'.

Key words Neuters in Spanish, *esto, eso, aquello, lo* and *ello*, Subjectivity vs. Intersubjectivity, Hierarchy of Cognitive Statuses